민담 속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과 서사적 의미

나지영*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다양한 민담들을 검토하면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존재적 속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젊은 과부 캐릭터의 서사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먼저 2절에서는 젊은 과부의 존재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관계 중심의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등을 살펴보았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특히 사회 규범의 강력한 영향력과 억압된 욕망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절에서 논의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표출한 과부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 앞에서 무너지면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일절 표현하지 않았던 과부 며느리만이 ‘재가’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담 속 ‘젊은 과부’는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꺼내 보였다가는 사회적 질타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을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감춰진 욕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논리상 ‘젊은 과부’는 억압된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시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캐릭터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젊은 과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속성이 어떠한 서사적 의미를 갖는지 보다 면밀히 살폈다. 이를 위해 ‘노총각-과부’ 관계 중심의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 논의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과부’는 ‘젊음’과 ‘부(富)’로 상징되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 가능성을 먼저 실현시키려고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이다. 따

*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강사

접수일(2018년 11월 6일), 게재 확정일(2018년 12월 5일)

라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와의 만남이 필연적이다. '스스로는 결핍을 채울 수 없지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젊은 과부가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목은 노총각이 과부를 새로운 판에 '자발적으로' 동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젊은 과부는 노총각이 마련한 판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감춰져 있던 욕망을 작품 전면으로 서서히 드러낸다. 젊은 과부는 어떠한 수치심이나 거부감 없이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자 억압되었던 욕망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소중한 소망이 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개인의 욕망,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목격자'의 등장은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 더욱 억압되고 좌절되느냐 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노총각과 젊은 과부의 성교 장면을 목격한 '옹기장수'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되지 않고, 동조자 내지 승인자가 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젊은 과부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억압된 욕망을 감추고 있던 젊은 과부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취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마지못해' 참여하여 '시늉'만 하였던 젊은 과부 역시 그 판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을 때, 가짜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를 그 판은 '진짜'가 되며 목격자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아니라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민담, 젊은 과부, 사회 규범, 욕망, 존재적 속성,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I. 서 론

민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만큼 원형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 자체로 우리 삶과 관련되는 보편성과 원형성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바로 '젊은 과부'이다. 민담 속에서 과부 캐릭터들은 평생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전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긍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평생 한 남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처럼 설정되어 있다. 이야기의 맥락상 과부는 나이가 어리고 많음을 떠나서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사회 규범 속에 갇힌 인물이다. 사회 규범이 부여한 '열녀'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개인의 욕망을 억누른 채 살아가야 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특히 '젊은 과부'는 그 자체로 엄청난 모순을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젊음'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성적 욕망과 남녀 결연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젊은 과부는 강력한 사회 규범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을 가장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젊은 과부' 캐릭터는 그 자체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많은 민담 속에 등장하는 젊은 과부 캐릭터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 상황과, 그러한 문제 상황 속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민담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다.

---

1)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호, 한국구비문학회, 2009; 신동흔, 「유럽민담 트릭스터에 비춰 본 방학중의 캐릭터 특성 연구-한국적 인물형으로서의 '소시민적 트릭스터'-」, 『겨레어문학』 제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하은하, 「아랑설화에서 드라마 〈아랑사또전〉에 이르는 신원대리자의 특징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이에 이 글에서는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다양한 민담들을 검토하면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존재적 속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젊은 과부 캐릭터의 서사적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곧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민담의 현재적인 사회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먼저 젊은 과부의 존재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관계 중심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특히 사회 규범의 강력한 영향력과 억압된 욕망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이 어떠한 서사적 의미를 갖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노총각-과부' 관계 중심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노총각-과부' 관계 중심의 이야기에서는 젊은 과부가 억압되고 억눌린 존재에서 변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

이 절에서는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관계 중심의 이야기들을 살펴 볼 것이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설정은 규범과 욕망의 대립을 보다 첨예하게 만들어 준다.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관계 중심의 대표적 이야기로는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2],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3],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4] 등이 있다.

---

2)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유형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3편이 채록되어 있다.(대계 7-13, 대구시 설화 100, 글소리에 마음 홀린 처녀; 대계 7-9, 복후면 설화 47, 김사계 선생의 절조; 대계 6-2. 신광면 설화 47, 서화담과 처녀) 3편의 각편은 『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에 정리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 문학과치료, 2009, 971~973쪽.)

3)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유형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4편이 채록되어 있다.(대계 7-14, 화원면 설화 10, 서울 다녀오자 팔자 고친 머슴; 대계 2-2, 춘천시 설화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성(性) 스캔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한 선생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에 반한 어떤 여인이 선생의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은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그 여인을 때려 내보냈다. 회초리를 맞고 돌아간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원님이 되었다.

선생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서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다.

과부가 된 며느리는 재가를 하려는 욕심에 흉계를 꾸미게 되었다. 며느리는 옷을 벗고 방안에 누워있었는데 그것을 본 선생이 며느리의 알몸을 감싸주었다. (▶문제 발생 지점)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며 시아버지를 모함하였다.

이에 원님이 판결을 내리려고 고민을 하니 그 어머니가 예전 자신이 그 선생에게 회초리 맞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원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을 무죄 방면 시켰다. (▶문제 해결 지점)

21, 대감을 구해준 도둑; 대계 8-5, 거창읍 설화 73, 정승 사위된 짓궂은 아들; 대계 8-4, 일반성면 설화 41, 황희 정승과 서춘보) 4편의 각편은『문학치료서사사전』제1권에 정리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 문학과치료, 2009, 973~976쪽.)

4)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유형은『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3편이 채록되어 있다.(대계 5-5, 정주시 설화 9, 시아버지의 무죄; 대계 8-9, 진영읍 설화 21, 명판관은 친구 아들; 대계 6-11, 한천면 설화 32, 도둑 덕분에 살아난 사람) 3편의 각편은『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에 정리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 문학과치료, 2009, 976~978쪽.)

㉯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어느 대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다.

밤이 되어 도둑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대감 집 과부 며느리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둑은 그 모습을 보고 과부를 겁탈했다. (▶문제 발생 지점)

잠에서 깬 며느리는 자신을 겁탈한 흔적이 있어 시아버지를 의심하곤 고발을 했다.

시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도둑이 양심에 자신이 대감 집 며느리를 겁탈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시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한 도둑을 칭찬하며 과부가 된 며느리와 혼인시켰다. (▶문제 해결 지점)

㉰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과부 며느리가 어느 날 속옷만 입은 채로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며 유혹했다. (▶문제 발생 지점)

시아버지가 나는 사람이라며 그냥 돌아섰는데 며느리가 계속 들어오라고 했다.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는 사람이라고만 하며 돌아서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했다며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모함하였다.

관가에서 시아버지를 문초하는데 시아버지는 나는 사람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결국 시아버지가 사형판결을 받았다.

사형집행 날이 되어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관가로와 사형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자신은 그 때 시아버지의 집으로 도둑질하러 들어간 사람이라며 마루 밑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도둑이 보니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마당으로 오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시아버지가 계속 나는 사람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가 관가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둑의 말을 들은 원님은 시아버지를 무죄 방면시켰다. (▶문제 해결 지점)

세 이야기 모두에서 시아버지는 과부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거나 또는 겁탈했다는 '오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시아버지가 과부 며느리를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겁탈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없다. 과부 며느리의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다. 과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성(性) 스캔들은 그 자체로 사회 규범을 위협하는 사건이다. 젊은 과부는 이러한 성(性)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인물이다. 수많은 민담 속에서 젊은 과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 성(性)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젊은 과부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회 규범을 위협하는 성(性)적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이것이 젊은 과부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규범의 강력한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작품을 비교하면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세 작품의 공통된 문제 발생 지점에서 과부 며느리는 '알몸' 또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에서 과부 며느리가 알몸 또는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이유는 텍스트 상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에서는 '재가'에 방해가 되는 시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알몸'이 되고,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에서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기 위해 '속옷' 차림이 된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과부 며느리는 억압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의 과

부 며느리는 재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의 과부 며느리는 이성과 성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이야기 모두에서 새로운 이성과의 결합을 소망하는 과부 며느리의 욕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이야기 속 과부 며느리는 자신들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표출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표 1〉 세 작품 속 '젊은 과부' 캐릭터의 특성 비교

	문제 발생 지점	문제 해결 지점
㉮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과부 며느리가 재가를 하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방해가 되자 모함을 하기로 계획 → 일부로 시아버지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켜 시아버지가 오해 받을 상황을 연출	시아버지는 자신의 도덕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는다. ▶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과 무죄만 입증된 채 마무리
	▶억압된 욕망 적극적으로 표출(재가하고 싶은 욕망), 과부 며느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	
㉯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옷만 입고 자는 과부 며느리를 도둑이 겁탈 → 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오해	▶ 시아버지의 무죄 입증 ▶ 동시에, 과부 며느리의 재가
	▶억압된 욕망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과부 며느리는 문제 발생 시 수동적 입장	
㉰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과부 며느리가 속옷만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 → 시아버지가 거절하자 오히려 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모함	시아버지는 자신의 도덕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는다. ▶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과 무죄만 입증된 채 마무리
	▶억압된 욕망 적극적으로 표출(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 과부 며느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	

반면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의 욕망은 텍스트 상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른 두 이야기 속 과부 며느리

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로서 움직였다면,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는 수동적으로 문제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 과부 며느리가 원하는 것, 과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전면에서 빠져있고,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은 도둑과 시아버지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과부 며느리는 '속옷' 차림으로 도둑이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정황만 제시되어 있다. 그 외에 과부 며느리는 도둑에 의해 사건을 당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재가 역시도 시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국 '재가'에 성공하여 다른 이성과 결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려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뿐이라는 점이다. 억압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던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와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속 과부 며느리는 결국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억눌린 욕망을 표출하고자 했던 과부 며느리들은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와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은 과부 며느리의 억압된 욕망 표출에서 시작하여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특히 이 두 이야기에서는 시아버지의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추가되면서 시아버지의 도덕적 완결성이 며느리의 욕망 보다 우위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는 ㉮와 ㉰ 속 과부 며느리와 같은 억압된 욕망을 품지 않았을까? 사실은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 또한 다른 두 이야기 속 과부 며느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록 텍스

트 상에서 대놓고 과부 며느리의 속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과부 며느리가 '속옷' 차림으로 '훤히 보이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설정은 과부 며느리의 억압된 욕망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도둑이 쉽게 과부 며느리에게 접근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과부 며느리가 도둑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과부 며느리에게도 ㉮와 ㉰의 경우에서처럼 '재가'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 이야기의 비교를 통해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중요한 존재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 과부'는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꺼내 보였다가는 사회적 질타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을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감춰진 욕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논리 상 '젊은 과부'는 억압된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시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캐릭터이다.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처럼 억압된 욕망을 감추고 있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수록 자신이 진정 소망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처럼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젊은 과부'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이 어떠한 서사적 의미를 갖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노총각-과부' 관계 중심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III. '젊은 과부' 캐릭터의 서사적 의미

'젊은 과부' 캐릭터는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

기 위해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섣불리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했다가는 사회 규범으로부터 강력한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된 이야기들은 개인의 욕망에 우위 하는 사회 규범의 강력한 힘을 잘 보여준다. 시아버지로 형상화 된 도덕적 완결성은 사회 규범과 결탁되면서 개인의 욕망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한다. 도덕적 완결성에 맞서서 사회 규범을 넘어서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담 속에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는 젊은 과부 캐릭터가 억압된 존재에서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젊은 과부가 관계를 맺는 대상은 '시아버지'에서 '노총각'으로 변화한다. '시아버지'라는 캐릭터가 사회 규범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노총각'이라는 캐릭터는 젊은 과부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노총각과 젊은 과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5)]

---

5)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유형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11편이 채록되어 있다. (대계 2-9, 영월읍 설화 343,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 대계 6-4, 상사면 설화 6, 지혜로 과부 얻은 노총각; 대계 8-10, 부림면 설화 9, 부자 과부에게 장가간 꾀보 총각; 대계 3-4, 학산면 설화 19, 과부 장가든 엉큼한 노총각; 대계 6-6, 임자면 설화7, 부자 과부 얻은 총각; 대계 6-6, 하의면 설화 15, 들여노라 내놔라 새우젓 장수; 대계 5-5, 정주시 설화 42, 장가를 가르쳐 준 과부; 대계 2-8, 영월읍 설화 151, 돈 많은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 대계 6-7, 장산면 설화 44, 장가가는 것 모른다면서 부자 과부 얻은 총각; 대계 8-5, 거창읍 설화 56, 꾀를 내어 장가간 이야기; 대계 6-1, 군내면 설화 25, 부부성교와 옹구장수) 11편의 각편은 『문학치료서사사전』 제3권에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3권, 문학과치료, 2009, 2606~2612쪽.)

가난한 노총각이 한 동네의 젊은 과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신 후에 몽둥이를 들고 장가도 못 가는 놈 때려죽인다며 쫓아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총각이 시킨 대로 하니, 총각이 과부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 아버지가 때려죽인다고 쫓아온다며 좀 숨겨 달라고 하였다.

과부가 총각을 숨겨주면서 왜 장가를 가지 않느냐고 묻자, 총각은 장가가는 법을 몰라서 못 가고 있다고 하였다.

과부는 장가가는 법을 알려 주겠다면서 대청에 혼례를 치를 때 쓰는 음식들을 차려 혼례를 치르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총각은 진짜 혼인식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차려진 음식을 다 먹었다.

총각이 이번에는 자는 방법도 알려 달라고 하였다. 과부는 총각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총각이 계속 더 알려 달라고 하자 옷을 벗고 총각과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총각에게 한번 갖다 대 보라고 하였다.

총각은 성기를 과부의 배꼽에 갖다 대었다. 과부는 조금 더 내려가라고 하면서 총각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총각이 가만히 있자 성기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총각이 들이밀고 가만히 있자 과부가 '들어오시오. 나가시오.' 하면서 구령을 붙일 테니 구령에 맞추어 들이밀었다가 뺐다가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부가 구령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과부의 집에 들어왔다가 구령 소리를 들었다. 옹기장수는 자기한테 '들어오시오, 나가시오.' 한다고 생각하여 문턱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었는데 구령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바람에 옹기 짐을 다 깨 버렸다.

옹기장수가 분이 나서 소리가 나는 방을 엿 보니 과부와 총각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옹기장수는 기다렸다가 과부에게 옹기 값을 물어내라고 하였다.

과부는 옹기장수에게 옹기 값을 물어주고 총각과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의 핵심적 흐름은 장가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노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노총각'이 강조되는 것은 '장가를 가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절실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노총각'은 '가난'하며, 홀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각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노총각은 '짝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은 강했으나 '가난'이라는 결핍 때문에 장가를 가지 못한다. '가난'은 노총각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결핍이다. 반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또 다른 핵심 축인 '젊은 과부'는 '젊음'이 있고, '부자'라는 것이 대부분 각 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과부가 '부자'라는 것은 노총각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젊은 과부'는 노총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결핍(가난)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노총각의 욕망(장가가는 것)까지도 이뤄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앞서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중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젊은 과부'는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런데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젊은 과부'는 '젊음'과 '부'로 상징되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과부'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먼저 실현시키려고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젊은 과부'는 '집안'에만 머무는 존재이다. 이는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중심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노총각이 먼저 과부의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집안에서 '홀로' 지낸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 전까지는, 누군가 담장을 넘어 자신의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이다.

흥미롭게도 '시아버지-과부 며느리' 중심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가'에 성공한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에서도 도둑이 먼저 과부의 방에 침범을 한다. 집 밖에 있던 남자가 집안을 뚫고 들어 왔기에 과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재가'까지

도 가능했던 것이다. 집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과부가 먼저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억눌린 욕망을 해소시키기는 어렵다. 그것은 집 밖의 누군가가 먼저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때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노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움직이는 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짜야 하고(2), 행동으로 옮겨 몸으로 직접 뛰어 들어야 한다.(3) 그런데 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판으로 뛰어드는 것 까지는 했지만, 그 판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에만 달려있지 않다. 그 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무리 총각의 열정과 패기가 넘친다 하더라도 총각 혼자서만은 새로운 판을 성공시킬 수 없다. 바로 '젊은 과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부와 함께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총각은 그 점을 이해하고, 과부를 새로운 판에 동참시킨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과부가 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목(4),(5),(6),(7)은 총각이 과부를 새로운 판에 '자발적으로' 동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총각은 성급하게 과부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천천히 과부에게 다가간다. 특히 직접적인 성관계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노총각은 절대로 먼저 과부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총각이 이번에는 자는 방법도 알려 달라고 하였다. 과부는 총각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총각이 계속 더 알려 달라고 하자 옷을 벗고 총각과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총각에게 한번 갖다 대 보라고 하였다. (7)총각은 성기를 과부의 배꼽에 갖다 대었다. 과부는 조금 더 내려가라고 하면서 총각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총각이 가만히 있자 성기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총각이 들이밀고 가만히 있자 과부가 '들

어오시오. 나가시오.' 하면서 구령을 붙일 테니 구령에 맞추어 들이밀었다가 뺐다가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부가 구령을 붙이기 시작했다.

노총각은 과부가 '스스로' 성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끔 유도한다. 과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과부는 총각이 마련한 판을 끝까지 가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감춰져 있던 과부의 목소리가 작품 전면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중에 과부는 '들어오시오. 나가시오.'라는 구령까지 만들어서 점차 그 판을 이끄는 주도적 목소리를 낸다.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은 왜 필요한가. 과부의 방에 뛰어 들어간 총각은 왜 곧바로 "나 너 맘에 든다, 너 나랑 살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 굳이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부는 총각에 비해 정적인 존재이다. '가능성은 있으나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자'이다. 작품 속 총각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먼저 움직여야 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이지만, 과부는 설령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존재이다. 그래서 총각이 자기 방안으로 뛰어 들어오기 전에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과부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과부에게도 총각과 비슷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과부가 총각의 꾀에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처 드러낼 수 없었던,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욕망이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서 옹기장수에게 노총각과의 성행위를 들킨 이후(8) 과부가 넉살좋게 '웃으며' 옹기 값을 물어 주었다는 각편[6]이 있는 것은 과부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옹기장수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들킨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

6) 대계 2-9, 영월읍 설화343, 과부에게 장가 든 노총각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존재인 것이다. 다른 각편을 보아도 과부는 옹기장수에게 자신과 노총각의 성행위를 들킨 이후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억압이 심하면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을 꺼내 보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노총각은 억압되어 있던 젊은 과부가 스스로 억압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그 계기를 받아들여 점차 노총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고, 옹기장수를 대면하게 된다. 옹기장수를 대면하는 것은 항상 노총각이 아닌 젊은 과부이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노총각이 장가가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동적이었던 과부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총각은 '서서히',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상대가 스스로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은 아직 진짜가 되지는 못한, 진짜를 시늉만 내는 가짜 판이었다. 진짜를 시늉만 하는 가짜 판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에게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어 젊은 과부는 어떠한 수치심이나 거부감 없이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자 억압되었던 욕망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소중한 소망이 되었다.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며느리가 재가에는 성공하였지만 끝끝내 자신의 욕망을 표출시키지는 않고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가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과부는 이제 점차 자신이 새로운 판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젊은 과부가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목격한, 두 사람의 성행위를 목격한 '옹기장수'가 등장한 이후의 대목인 (8),(9),(10)이다. 옹기장수의 등장은 노총각과 과부의 관계가 '시늉'에서 '진실'로, '가짜'에서 '진

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전까지 노총각과 과부의 행위는 '~하는 척', '~하는 시늉'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것이지만, 옹기장수라는 '목격자'가 등장한 이후, 시늉은 진실로, 가짜는 진짜로 전환하게 된다. 한마디로 감춰졌던 욕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개인의 욕망,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목격자' 또는 '감시자'의 등장은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 더욱더 억압되고 좌절되느냐 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다. 목격자의 등장에 두려워하고 움츠려들면 진짜가 될 수 있었던 새로운 판은 가짜로 남게 된다.

목격자의 존재가 '감시자' 또는 '처벌자'가 되는지, 아니면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되는 지는 정말로 한 끗 차이일 수 있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목격자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되지 않고, 동조자 내지 승인자가 되었다. 작품 속에서 목격자가 감시자 또는 처벌자가 아닌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의 경우를 보자면, 여기서는 새로운 판을 이끌어 갈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었다. 목격자(옹기장수)를 대응하며 대처하는 이는 바로 젊은 과부이다. 작품의 초반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던 노총각이 아니라, 노총각의 자극에 의해 변화된 젊은 과부가 목격자를 대면하고 대처하는 주체가 된다. 노총각에 의해 벌어진 판이었지만, 그 판은 더 이상 노총각 혼자만의 판이 아니었다. 수동적으로 그 판에 '마지못해' 참여하여 '시늉'만 하였던 젊은 과부 역시 그 판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판은 '진짜'가 되며, 목격자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아니라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수많은 민담 속에서 '젊은 과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 성(性)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중요한 존재적 속성을 보여준다. 젊은 과부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회 규범을 위협하는 성(性)적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이것이 젊은 과부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규범의 강력한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회 규범에 벗어나는 개인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젊은 과부' 캐릭터는 그 자체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많은 민담 속에 등장하는 젊은 과부 캐릭터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 상황과, 그러한 문제 상황 속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민담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젊은 과부'가 등장하는 다양한 민담들을 검토하면서 젊은 과부 캐릭터가 지니는 존재적 속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젊은 과부 캐릭터의 서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을 살펴보면서 '젊은 과부' 캐릭터의 존재적 속성을 탐색하였다. 세 작품의 비교를 통해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재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억압된 욕망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와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속 과부 며느리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억압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던 〈며느리의 모함과 회초리〉와 〈며느리의 유혹과 모함〉 속 과부 며느리는 도덕적 완결성을 보여준 시아버지와 대비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결국 '재가'에 성공하여 다른 이성과 결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갔던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뿐이라는 점이다. 비록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과부 며느리가 텍스트 상에서 대놓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속옷' 차림으로 '훤히 보이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설정은 억압된 욕망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셋째, '젊은 과부'는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꺼내 보였다가는 사회적 질타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자신의 욕망을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감춰진 욕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논리 상 '젊은 과부'는 억압된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시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캐릭터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를 살펴보면서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젊은 과부'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젊은 과부'가 '젊음'과 '부'로 상징되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젊은 과부'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먼저 실현시키려고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노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자'이다. 그런데 진정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젊은 과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총각은 그 점을 이해하고 젊은 과부를 새로운 판에 동참시킨다. '젊은 과부' 캐릭터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와의 만남이 필연적이다. '스스로는 결핍을 채울 수 없지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자'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젊은 과부가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목은 노총각이 과부를 새로운 판에 '자발적으로' 동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젊은 과부는 노총각이 마련한 판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감춰져 있던 욕망을 작품 전면으로 서서히 드러낸다. 젊은

과부는 어떠한 수치심이나 거부감 없이 서서히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자 억압되었던 욕망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소중한 소망이 되었다. 〈며느리의 오해와 도둑의 증언〉 속 며느리가 재가에는 성공하였지만 끝끝내 자신의 욕망을 표출시키지는 않고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가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 속 과부는 이제 점차 자신이 새로운 판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개인의 욕망,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목격자' 또는 '감시자'의 등장은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 더욱더 억압되고 좌절되느냐 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다.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에서 목격자인 '옹기장수'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되지 않고, 동조자 내지 승인자가 되었다. 작품 속에서 목격자가 감시자 또는 처벌자가 아닌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노총각에게 장가가는 법 가르쳐 준 과부〉의 경우를 보자면, 자신의 욕망을 감춘 채 수동적으로 새로운 판에 '마지못해' 참여하여 '시늉'만 하였던 젊은 과부 역시 그 판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을 때, 가짜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를 그 판은 '진짜'가 되며 목격자는 감시자나 처벌자가 아니라 동조자 또는 승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호, 한국구비문학회, 2009.

신동흔, 「유럽민담 트릭스터에 비춰 본 방학중의 캐릭터 특성 연구-한국적 인물형으로서의 '소시민적 트릭스터'-」, 『겨레어문학』 제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1권, 문학과치료, 2009.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제3권, 문학과치료, 2009.

하은하, 「아랑설화에서 드라마 〈아랑사또전〉에 이르는 신원대리자의 특징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ABSTRACT〉

The Existential Attributes and Narrative Meaning of ‘Young Widow’ Character in Folktale

Na, J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xistential attributes and narrative meaning of ‘young widow’ character in folktale. In chapter 2, <Daughter-in-law’s slander and a cane>, <Daughter-in-law’s misunderstanding and testimony>, <Daughter-in-law’s seduction and slander> are examined. Those folktales ar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law’ and ‘widowed daughter-in-law’. ‘Father-in-law’ character represents a ‘sound social norm’. The following are some findings. First, widowed daughter-in-law who expressed her oppressed desire eagerly always failed to get remarried. ‘Remarry’ is what widowed daughter-in-law’s truly wish for. Ironically, widowed daughter-in-law who didn’t expressed her oppressed desire at all only succeed in remarry. On the contrary, widowed daughter-in-law who expressed her oppressed desire eagerly had to be accused and punished by social morality. Second, ‘young widow’ character in folktale cannot show her desire by herself. She is a ‘unmovable being’ who has to wait someone to give her a chance to express her desire. If ‘young widow’ character shows her oppressed desire and tries to achieve it, she has to confront the severe moral standard, and ends up fail.

In chapter 3, <A widow teaching how to get married> is examined. This folktale 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ld bachelor’ and ‘young

widow’. The following are some findings. First, ‘young widow’ has lots of possibility and potential power which are shown as ‘wealth’ in the text. On the other hand, ‘old bachelor’ always describes as poor man. Even though ‘young widow’ has lots of possibility and potential power, she cannot try to achieve her desire by herself. In order to achieve her true goal, ‘young widow’ character needs to meet a ‘movable being’. ‘Old bachelor’ is the character who can move first and express one’s desire. When these two beings are met, fundamental lack of each character can be fulfilled. Second, the ‘process of teaching how to get married’ in <A widow teaching how to get married> is the process of ‘young widow’s change. Before she involved the process initiated by the old bachelor, she hid her desire and couldn't express it. She couldn't try to achieve her true desire. However, after slowly and carefully getting involved the process, she finally admitted her hidden desire, and tried to achieve it. Third, when the social norm and personal desire are collided, appearance of witness is the turning point. In <A widow teaching how to get married>, ‘a pottery dealer’ who witnessed the coitus between ‘young widow’ and ‘old bachelor’ became the ‘approver’ not the ‘surveillant’. If ‘a pottery dealer’ became the ‘surveillant’,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widow’ and ‘old bachelor’ would confront the severe social morality. However, in this folktake, appearance of witness helped the ‘young widow’ to achieve her oppressed desir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change of ‘young widow’. When ‘young widow’ also can express her desire freely, and became the active agent of her own behavior, the witness can be the ‘approver’ easily.

Key Words : Folktale, Young Widow, Social Norm, Desire, Existential Attributes, <Daughter-in-law's slander and a cane>, <Daughter-in-law's misunderstanding and testimony>, <Daughter-in-law's seduction and slander>, <A widow teaching how to get married>